

연구보고서 요약서

주제: PEAC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희망 나누기

소속: 신도초등학교

직위·성명: 교사 금선숙

1. 연구의 필요성: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에 대한 열린 대화의 어려움

2. 연구의 목적

- 가. 학생들이 분단의 역사와 분단으로 생긴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 나.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다. 학생들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3. 연구 대상 및 기간

- 가. 연구 대상: 신도초등학교 4학년 1반 총 29명(남13명, 여 16명)
- 나. 기간: 2016년 3월 - 2017년 2월

4. 실행 내용

- 가. 프로그램 P (PERCEIVE) 아는 만큼 보인다
 - 북한 초등학생의 생활을 살펴보자
 - 분단의 역사를 알아보자
 - 분단의 아픔을 살펴보자
 - 남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 나. 프로그램 Ex (EXPERIENCE) 체험하고 느껴보자
 - 북한 이탈 주민의 강의를 들어보자
 - 남과 북 분단을 가상 체험해보자
 - 안전지대를 찾아라
 - 국군 장병께 감사편지를 쓰고 전달하자
- 다. 프로그램 A (ASPIRE)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평화통일 기원 노래 자랑
 - 평화통일 염원 백일장
 - 평화통일 기원 우표 제작
 - 통일한국에서의 나의 장래희망
- 라. 프로그램 C (COOPERATE) 함께 꿈꾸자, 평화통일!
 - 남과 북 통일 텃밭을 가꾸다
 - DMZ 생태공원을 꿈꾸다
 - 통일한국 경제를 꿈꾸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남북 단일팀 국가대표 가상 선발전에 참가하다
- 마. 프로그램 En (ENCOUNTER) 독일과 북한의 친구를 만나다
 -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품다
 - 통일독일을 보고 분단의 치유를 꿈꾸다
 -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희망이 부풀다
 - 북한에서 온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자

5. 검증 방법 및 결과

- 가. 검증 방법: 통일 의식 설문 문항 5단계 리커트 척도 사전 사후 조사 평균 비교
- 나. 결과: 전 문항 응답 평균의 상승(2.29→3.81), 사전 조사 응답 평균 하위 4개 문항의 괄목할만한 향상, 사전 조사 응답 평균 상위 3개 문항 평균 4.00 이상

6. 결론

실행 내용과 같은 맥락의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일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린 학생들에게 통일 의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4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 출품 부문: 초등부

□ 참가 교원: 소속 신도초등학교
성명 금선숙

PEAC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희망 나누기

목 차

연구보고서 요약서	i
I. 서론	1
1. 학교의 특성 및 여건	1
2. 연구의 필요성	1
3. 연구의 목적	2
4. 용어의 정의	2
II. 연구의 배경	3
1. 통일교육 목표 및 지도 방향	3
2.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	4
III. 연구 과제의 설계	5
1. 대상 및 기간	5
2. 실태 조사 분석	5
3. 연구 과제 선정	7
4. 연구 과제 진행 과정	7
IV. 연구 과제의 실행	8
1. 프로그램 P의 실행: 아는 만큼 보인다	9
2. 프로그램 Ex의 실행: 체험하고 느껴보자	13
3. 프로그램 A의 실행: 우리의 소원은 통일	17
4. 프로그램 C의 실행: 함께 꿈꾸자 평화통일	21
5. 프로그램 En의 실행: 독일과 북한의 친구를 만나다	25
V. 운영의 결과 및 논의	29
1. 결과	29
2. 결론	30
참고문헌	32
부록	
<부록1>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 초등학생의 과제	33
<부록2>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역사박물관	34
<부록3> [어린이 시사교실] 선생님 사드가 뭐예요?	35
<부록4> 신히민님의 마음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6
<부록5>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시장	38
<부록6> 통일독일 베를린 편	39
<부록7> 통일독일 드레스덴 편	40
<부록8> 통일독일 비무장지대 편	41
<부록9> 남북 언어 맞히기 놀이	42

I. 서론

1.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본교는 1990년 조성된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중동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2016학년도 기준 전교생 수는 870명 내외이고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학급 학생 수는 30명 내외이다. 본교 근무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담임교사로서 만났던 학생들 중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혹은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의 자녀가 한 명 정도 있거나 없었던 해도 있었다. 전교생 중 2016학년도 기준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5년간 전교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2012학년도에 타 지역에서 전학을 와서 2013학년도에 졸업하였다. 맞벌이 가정은 70% 내외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쪽이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경우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된 시간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즉, 학교생활 후 방과후 학교 참여나 교과 관련 학원 및 예체능 관련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학생들의 일주일이 지나간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주로 여가 활동, 종교 생활, 드물게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시 아이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주말이면 생일 파티나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끼리 만나 어울리는 친교 활동이 활발하다. 북한 이탈 주민은 공중과나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매 학년말 실시되는 차기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을 위한 설문조사의 최근 5년 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 교육’이나 ‘호국보훈 교육’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는 저학년에서 중학년, 중학년에서 고학년을 거치면서 약간의 비율 변화는 있지만 자녀의 건강과 안전, 친구 관계, 학업 성적 등이었다.

학교 교직원들의 연령층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남교사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학교의 특성 상 본교에 근무하면서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자녀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거의 없는 편이다.

2. 연구의 필요성

통일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제대로 관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한반도는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과 2월 로켓 발사 소식으로 새해를 맞이하였다.

십 년 이상 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을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통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아마도 아직 어리고 남북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표현해야 할 경우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문예 행사 시 통일의 필요성을 논하려고 해도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어렵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자신의 다른 흥밋거리들처럼 활발하게 토의, 토론을 하거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사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 통일 문제가 일상적인 화제거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지금껏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통일을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혹은 통일

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충분히 생각하고 느껴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몸으로 부딪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준다면 통일에 대한 생각의 씨앗이 뿌려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생각도 같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성적 질문들이 본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3. 연구의 목적

통일교육을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미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교사의 개별 연구 혹은 연구학교의 집단 연구 그리고 유관 기관의 노력 덕분에 교육 자료가 양적으로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어른들이 품고 있는 평화통일의 희망을 우리의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통일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희망을 학생들과 나누어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꿈과 의지를 다지고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분단의 역사와 분단으로 생긴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북한의 초등학생과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peace’는 ‘평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PEACE 프로그램’의 ‘PEACE’는 다음 단어들의 맨 앞 알파벳을 조합한 용어이다.

개별 단어	기본 의미	확장된 의미
Perceive	인지하다	분단의 역사와 분단으로 생긴 어려움을 인지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안다.
Experience	체험하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고 분단의 현실을 체험해 보고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을 체험해 봄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
Aspire	염원하다	평화통일의 희망을 나누고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Cooperate	협력하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꾼다.
Encounter	만나다	통일독일을 보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꾸고 북한에서 온 친구를 만나 평화통일의 희망을 함께 나눈다.

II. 연구의 배경

1. 통일교육 목표 및 지도 방향

통일교육의 목표와 통일교육 시 염두에 둘 점 등 지도 방향에 대한 탄탄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과교육론이나 다양한 교수법을 알고 있더라도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검증된 방향을 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과,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주안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지를 확립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넷째,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여섯째,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한다.

다.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적절한 지도방법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16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열린 대화와 토의를 중시한다.

셋째,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한다.

넷째,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라.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영역	항목
통일문제의 이해	① 통일문제의 성격 ② 분단의 배경 ③ 분단의 폐해 ④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의 역량 ⑤ 통일의 필요성 ⑥ 통일비용과 편익 ⑦ 통일의 기본구상 ⑧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 이해	① 북한에 대한 인식 ② 북한의 정치와 외교 ③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④ 북한의 경제 ⑤ 북한의 사회·문화
통일환경의 이해	① 국제정세의 변화 ②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정책	① 우리의 통일방안 ②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③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①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키기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더욱 성숙시키기 ③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가안보 역량 갖추기 ④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추진 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2. 선행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과제의 설계와 실행에 앞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알맞은 효과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연구시범학교와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주제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다양한 체험 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통일 의지 함양	서울우암 초등학교 (2014)	다양한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흥미와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 의식 함양	곡성중앙 초등학교 (2014)	흥미와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통일 의식을 높이고 호국 안보 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통해 통일 의지 기르기
통일희망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실천적 통일 의식 함양	고령 초등학교 (2014)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통일교육을 실천하고 다양한 통일 체험행사 운영으로 실천적 통일 의식 기르기
통일이! 놀자	신승재 (2014)	스마트 교육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 제고, 분단의 아픔 알기, 통일의 필요성 이해, 통일 시대에서의 나의 역할 생각하기 실시하여 통일 미래 세대 육성하기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키우고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운영 과제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학교나 개별 학급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 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에 적합한 제재와 시기를 정해 제재의 변용과 적용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과 통일부와 교육부가 다년간 개발해 놓은 다양한 교육 자료, 현안 쟁점과 사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연계하여 4학년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한다.

Ⅲ. 연구 과제의 설계

1. 대상 및 기간

가. 연구 대상: 신도초등학교 4학년 1반 총 29명(남 13명 여 16명)

나. 연구 기간: 2016. 03. - 2017. 02.

2. 실태 조사 분석

실태 조사를 위하여 구안된 설문지는 응답자가 북한 이탈 주민을 직접 접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과 북한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 쓰기 문항(복수 응답 가능), 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 총 13개로 구성되었다. 평가 문항의 85%를 차지하는 11개의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N=29			
	예	아니오	계
나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학교나 이웃에서 접해 본 적이 있다.	2명(7%)	27명(93%)	29명(100%)

➔ 수업 중 북한 출신 친구나 북한 이탈 주민을 접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한 학생은 가게에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 다른 한 학생은 이웃집에 북한말을 하는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위 응답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들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 교포인지 북한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주변에서 직접 북한 사람과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응답 내용	응답 수	백분율	응답 내용	응답 수	백분율
김정은	19	14.62	연평해전	1	0.77
백두산	8	6.15	지뢰	1	0.77
6.25전쟁	7	5.38	소련	1	0.77
통일	7	5.38	공산당	1	0.77
탈북	6	4.62	평양	1	0.77
김정일	5	3.85	장기집권	1	0.77
38선	5	3.85	제멋대로	1	0.77
독재	5	3.85	왕 노릇	1	0.77
평양냉면	5	3.85	초코파이	1	0.77
말, 말투, 언어, 사투리, 옛날 말	5	3.85	비무장지대	1	0.77
핵(무기)	4	3.08	금강산	1	0.77
미사일	4	3.08	현충일	1	0.77
공산주의	4	3.08	현충원	1	0.77
군인	4	3.08	로켓	1	0.77
김일성	3	2.31	군대	1	0.77
무기	3	2.31	빨간 스카프	1	0.77
이산가족	3	2.31	거지	1	0.77
돼지	3	2.31	기아	1	0.77
사회주의	2	1.54	빈부격차	1	0.77
수용소	2	1.54	가난한 사람들	1	0.77
국제연합	2	1.54	불쌍한 사람들	1	0.77
전쟁	2	1.54	없음	1	0.77
계				130	100%

➔ 학생들은 '북한'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여러 개씩 응답하였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과 관련지을 수 있는 '장기집권, 제멋대로, 왕 노릇'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나 전쟁, 무기와 관련된 응답, '거지, 기아,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응답 등 매우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수업을 실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도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N=29

	1	2	3	4	5	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	4 (14%)	3 (10%)	10 (35%)	9 (31%)	3 (10%)	29 (100%)	3.14	1.19
2.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생긴 고통을 알고 있다.	3 (10%)	4 (14%)	5 (17%)	10 (35%)	7 (24%)	29 (100%)	3.48	1.30
3.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알고 있다.	7 (24%)	2 (7%)	8 (28%)	7 (24%)	5 (17%)	29 (100%)	2.97	1.43
4. 나는 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고 있다.	3 (10%)	6 (21%)	9 (31%)	10 (35%)	1 (3%)	29 (100%)	3.03	1.12
5. 나는 북한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10 (35%)	10 (35%)	5 (17%)	3 (10%)	1 (3%)	29 (100%)	2.10	1.08
6. 나는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관심이 있다.	9 (31%)	8 (28%)	6 (21%)	3 (10%)	3 (10%)	29 (100%)	2.34	1.34
7. 나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	4 (14%)	8 (28%)	9 (31%)	6 (21%)	2 (7%)	29 (100%)	2.76	1.12
8.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10%)	2 (7%)	8 (28%)	5 (17%)	11 (38%)	29 (100%)	3.66	1.34
9. 나는 통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다.	6 (21%)	8 (28%)	10 (35%)	4 (14%)	1 (3%)	29 (100%)	2.52	1.09
10. 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21%)	3 (10%)	6 (21%)	9 (31%)	5 (17%)	29 (100%)	3.14	1.41
11. 나는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이 문제없이 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6 (21%)	6 (21%)	8 (28%)	6 (21%)	3 (10%)	29 (100%)	2.93	1.31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3.66)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높고 분단으로 생긴 어려움에 대한 응답 평균(3.48)이 두 번째로 높았다.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인지함(3.14), 통일 한국 미래에 대한 기대(3.14)가 그 다음이었으나 11개 문항 중 6개 문항의 응답 평균이 3.00을 넘기지 못하였다.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한 관심(2.10),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대한 관심(2.34)이 매우 저조하였고, 통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2.52)과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2.76) 문항의 응답 평균도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본 연구를 실행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관심, 남과 북의 교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요구된다. 국가유공자가 어떤 분들인지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꾸며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3. 연구 과제 선정

평화통일의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 P PERCEIVE	아는 만큼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초등학생의 생활을 살펴보자 • 분단의 아픔을 살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의 역사를 알아보자 • 남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프로그램 Ex EXPERIENCE	체험하고 느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탈 주민의 강의를 들어보자 • 안전지대를 찾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 분단을 가상 체험해보자 • 국군 장병께 감사편지를 쓰고 전달하자
프로그램 A ASPIRE	우리의 소원은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기원 노래 자랑 • 평화통일 기원 우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염원 백일장 • 통일한국에서의 나의 장래희망
프로그램 C COOPERATE	함께 꿈꾸자, 평화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 통일 텃밭을 가꾸다 • DMZ 생태공원을 꿈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남북 단일팀 국가대표 가상 선발전에 참가하다 • 통일한국 경제를 꿈꾸다
프로그램 En ENCOUNTER	독일과 북한의 친구를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품다 •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희망이 부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독일을 보고 분단의 치유를 꿈꾸다 • 북한에서 온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자

4. 연구 과제 진행 과정

단계	추진 활동	연구 기간(2016. 03. - 2017. 0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준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	✓										
	실태 조사		✓										
	문헌 연구 및 선행 사례 분석	✓	✓	✓									
	연구 주제 및 연구 과제 설계	✓	✓	✓									
전개	연구 과제 실행		✓	✓	✓	✓	✓	✓	✓				
정리	연구 결과 분석								✓				
	연구 과제의 지속적인 실천									✓	✓	✓	✓

IV. 연구 과제의 실행

통일교육 활동을 교육과정 내용에 연계하여 연구 과제를 실행하였다. 학생들이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교사가 지도 주체가 아닌 외부 강사나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학생들과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 내용	통일교육 활동
P PERCEIVE 아는 만큼 보인다	도덕	3. 더불어 나누는 이웃 사랑	북한 초등학생의 생활을 살펴보자
	도덕	호국보훈의 달 계기교육	분단의 역사를 알아보자
	도덕	4. 둘이 아닌 하나 되기 + 6.25전쟁 계기교육	분단의 아픔을 살펴보자
	국어	한글날 계기교육	남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Ex EXPERIENCE 체험하고 느껴보자	창체	통일주간	북한 이탈 주민의 강의를 들어보자
	도덕	4. 둘이 아닌 하나 되기	남과 북 분단을 가상 체험해보자
	미술	주제를 살려서	
	체육	도전 활동	안전지대를 찾아라!
A ASPIRE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국어	국군의 날 계기교육 + 3. 대화를 나누어요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기	국군 장병께 감사편지를 쓰고 전달하자
	창체	자율 활동 - 친교 활동	평화 통일 기원 노래 자랑
	국어	10. 감동을 표현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살려서 시를 바꾸어 쓰는 방법을 알아보기	평화 통일 염원 백일장
	미술	생활 속 미술의 발견 - 나의 생활 속 디자인	평화 통일 기원 우표 제작
C COOPERATE 함께 꿈꾸자 평화통일!	사회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통일한국에서의 나의 장래희망
	과학	2. 식물의 한살이 + 학교 역점 과제	남과 북 통일 텃밭을 가꾸다
	체육	경쟁 활동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남북 단일 팀 국가대표 가상 선발전 참가하다
	미술	주제를 살려서 + 미술사와 미술 비평	DMZ 생태공원을 꿈꾸다
En ENCOUNTER 독일과 북한의 친구를 만나다	사회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생각 쑥쑥	통일한국 경제를 꿈꾸다
	국어	9. 생각을 나누어요 영상 매체를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품다
	국어		통일독일을 보고 분단의 치유를 꿈꾸다
	국어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희망이 부풀다
도덕	4. 둘이 아닌 하나 되기	북한에서 온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자	

평화통일의 희망을 나누기 위한 P, Ex, A, C, En 프로그램 각각은 4차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희망을 나누는 학생들이 또 다른 이들과 그 희망을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통일교육 과제를 실행하였다. 실행 결과를 각 활동별로 정리하였다. 활동 목적은 학생들의 배움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교사의 실천 목적 혹은 수업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실행 결과에는 학생들의 활동 후 생각과 느낌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찰이 함께 들어가 있다.

1. 프로그램 P의 실행: 아는 만큼 보인다

프로그램 P

PERCEIVE

북한 초등학생의 생활을 살펴보자

2016-05-23 월 2교시

1) 활동 목적

- 학생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북한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남과 북 초등학생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 북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남북 간 이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북한 학생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우리는 친구>를 보고 북한 초등학생의 생활과 북한 사회를 간접 체험해본다.
- 활동 2 - 신문 활용 교육 활동지의 기사를 읽고 사실 확인 문제를 해결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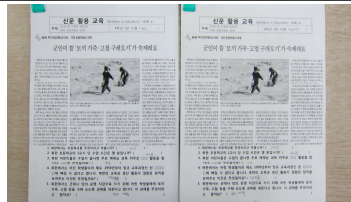
NIE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 초등학생의 과제 <부록 1>
북한 초등학생들의 특이한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활동 3 - 활동 1과 활동 2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쓰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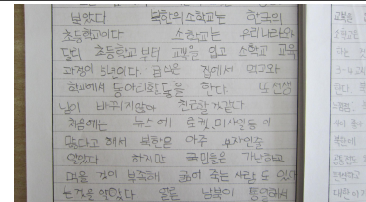
교육과정 연계 사항: 도덕 3. 더불어 나누는 이웃 사랑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북한 이해 ① 북한에 대한 인식 ⑤ 북한의 사회·문화



우리는 친구 중 한 장면



NIE 활동지



느낀 점이 아주 많아요!

3) 실행 결과

- 학생들에게 제시한 통일교육 자료가 매우 흥미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북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는 편견이 생길 수도 있을 듯한데 이런 시선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편하지 않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도가 추후 필요해 보인다.
- 홍○○“북한의 소학교는 한국의 초등학교이다. ... 뉴스에서 북한에 로켓, 미사일 등이 많다고 해서 북한이 아주 부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얼른 남북이 통일해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이 된다면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력이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다. 또 금강산, 백두산과 같은 자연 환경 덕분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수업은 정말 도움이 된 것 같다.”
- 김○○“북한에 대한 영상을 보았다. 북한은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나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였다. 북한 아이들은 목에 빨간 스카프를 메고 학교를 다닌다. 북한은 모범 학생만 가는 ‘배움의 천리길’이 있는데 14일 동안 걷는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이 되면 나는 음식을 나눠 주고 싶다. 그리고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좋은 정보도 얻고 놀고도 싶다. 하필이면 전쟁이 나서 이런 모습이 되다니... 우리는 통일이 되면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1) 활동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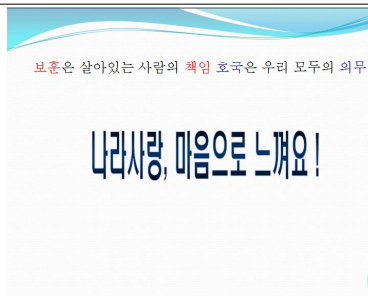
- 6.25전쟁의 발발 원인과 분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단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호국보훈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인지 살펴봄으로써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 이를 통해 느낀 점과 다짐을 나누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긴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일제강점기에서 시작해 해방 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이 이루어진 분단의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준다.
 - ‘호국보훈’의 뜻을 알아보고 6월 6일 현충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
 - 국가유공자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본다.
- 활동 2 - 느낀 점과 새롭게 다짐하게 된 점을 이야기한다.
- 활동 3 - 도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기 게양법을 익힌다.
 - 애국가 1~4절 쓰고 외워서 제창한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도덕 호국보훈의 달 계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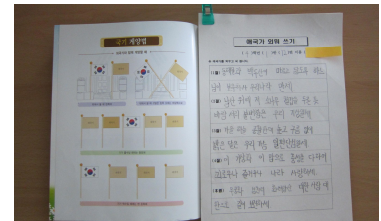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문제의 이해 ② 분단의 배경



분단의 역사를 알아보자



애국가 1~4절 기억해보자



국기 게양법을 익히자

3) 실행 결과

- 학생들이 화제가 되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6.25전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국가유공자가 어떤 분인지 살펴볼 때 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TV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몰라봐 화제가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자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김○○“6.25전쟁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 했었는데 휴전 협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못 만나고 있는 게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슬펐다. 빨리 통일하고 싶다...”
- 이○○“ 6.25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용감하고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저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평양도 구경하고 북한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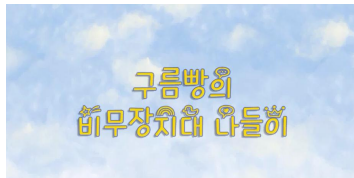
1) 활동 목적

-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분단으로 겪는 어려움을 통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 통일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진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6.25전쟁 계기교육을 위해 6/21(화)부터 6/23(목)까지 아침활동 시간에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알 수 있는 미디어 자료 <가자미의 눈물> <구름빵의 비무장 지대 나들이> <백령도 점박이 물범>을 함께 보고 이산가족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 활동 2 -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비무장 지대 철책선을 대한민국 군인들이 순찰하는 모습 살펴보기
 - 임진각에서 북을 향하여 망향제를 지내는 실향민의 모습 살펴보기
 - 남북 여자 축구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겨루는 모습 살펴보기
 -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나타내는 모습 살펴보기
 -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서 군사 분계선 사이에 두고 경계를 서고 있는 남북한 군인들의 모습 살펴보기
- 활동 3 -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였을 때 좋은 점을 표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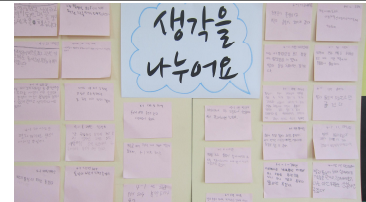
교육과정 연계 사항: 도덕 4. 둘이 아닌 하나 되기 + 6.25전쟁 계기교육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문제의 이해 ③ 분단의 피해 ⑤ 통일의 필요성



DMZ의 동물들 이야기



백령도 점박이 물범 보기



생각과 느낌 나누기

3) 실행 결과

-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교육 자료의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통일 교육원과 교육부의 다양한 미디어 자료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박○○“가자미의 눈물을 보고 이산가족이 만나도록 남한과 북한이 꼭, 꼭 언젠가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통일이 되어서 더 커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천○○“이산가족이란 피해자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것이 너무 안타깝다. 오늘 나는 조금 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황○○“빨리 통일이 되어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산가족도 빨리 상봉하였으면 좋겠다.”

2016-10-05 수 3교시

1) 활동 목적

- 한글날을 맞이하여 북한에서 한글 창제 관련 역사를 어떻게 배우는지 살펴본다.
- 남한 말과 북한 말 중 서로 다르게 쓰는 말을 비교하고 익혀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신문 활용 교육 활동지의 기사를 읽고 사실 확인 문제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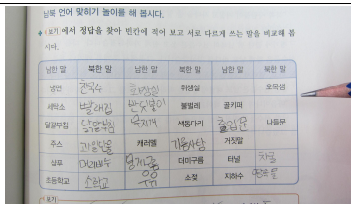
NIE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역사박물관 <부록 2>
 북한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 확인할 수 있음

- 활동 2 - 도덕책 107쪽 ‘스스로 해 봅시다’의 남북 언어 맞히기 놀이를 활용한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남북 언어 맞히기 놀이 활동지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부록 9>
- 활동 3 - 학생들은 남한 말과 북한 말 중 서로 다르게 쓰는 말을 비교한 후 남한 말과 북한 말의 특징을 스스로 발견한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국어 한글날 계기교육 (향후 국어 6. 우리말 여행을 떠나요 관련)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④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추진



남북 언어 맞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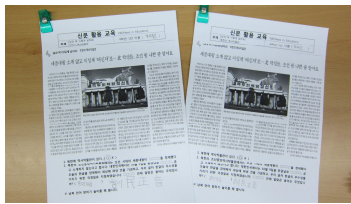
알쏭달쏭 북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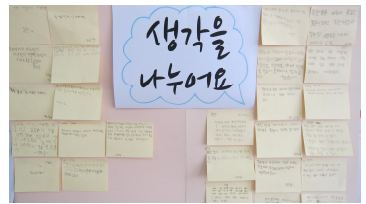
우리말 사전이 필요하다!



신문 기사 읽기



NIE 활동지



북한 말을 알아보고

3) 실행 결과

- 남북 언어를 맞히는 것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 했다. 학생들이 더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요청으로 활동지를 만들어 추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북한 말에 외국어, 외래어, 심지어 한자어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큰 관심을 보였다.
- 이○○“나중에 우리가 쓸 수도 있는 말이니까 새로웠다. 또 비슷비슷하긴 한데 다른 북한 말이 재미있었다.”
- 천○○“같은 한국인이라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많이 다른 것을 보면 분단되어 있는 세월이 느껴져 슬프다. ...”
- 정○○“우리나라는 외래어도 쓰면서 말을 하는데 북한 말은 처음 봐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정말 한글을 쓰는 나라인 것 같아 좋다. 북한 말을 알아보니 재미있었다.”

2. 프로그램 Ex의 실행: 체험하고 느껴보자

프로그램 Ex

EXPERIENCE

북한 이탈 주민의 강의를 들어보자

2016-05-23 월 1교시

1) 활동 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을 직접 접해 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접해 볼 기회를 갖는다.
- 통일강좌를 듣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쓰면서 남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북한 이탈 주민 출신 강사의 북한 이야기를 경청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강좌 강사]
- 활동 2 - 통일강좌를 듣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써본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통일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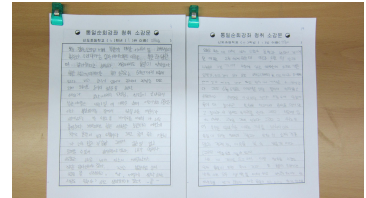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북한 이해 ① 북한에 대한 인식 ⑤ 북한의 사회·문화



북한 이탈 주민의 강의



소감문 작성



많은 점을 느꼈어요!

3) 실행 결과

- 강사의 북한 억양과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소재 덕분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다. 학생들 중 몇 명이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쓴 글을 읽고 남북 관계에 대한 성숙한 시선을 찾을 수 있었다.
- 김○○“오늘 강사 선생님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 북한 학교에 대해서는 북한 소학교는 5학년까지 밖에 없다. 그리고 급식이 없으며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한다. 소학교가 끝날 때까지 선생님, 친구들이 안 바뀐다. 북한 아이들은 4월 1일에 개학을 하며 어린이날은 6월 6일이다. 북한 아이들 중에서 탈북하는 어린이가 생겨났다. 나는 수용소를 가게 되는 어린이가 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힘든 생활을 보낸다고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굶어 죽는 어린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굶는 일 없고 잘 먹을 수 있어 감사해야겠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정말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하고 생각해야겠다.”
- 김○○“오늘은 북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북한과 남한이 갈리게 된 이유는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반으로 나뉘었을 때 나뉜 것이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서 흐르는 강은 압록강, 두만강이 있다. (중략) 탈북하는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손재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도 갈 수 있다.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점들을 느꼈다. 먼저 통일이 되면 좋다는 것과 또 통일이 되려면 남북 서로 모두 양쪽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통일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2016-06-24 금 1-4교시

1) 활동 목적

- 교실에 남북 분단 가상 환경을 만들어 분단된 현실을 체험해본다.
- 분단을 체험하면서 교류 활동을 해보고 통일 의지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키운다.
-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고무줄 철조망으로 교실을 남(2,4,6,8모둠 교실 뒤쪽)과 북(1,3,5,7모둠 교실 앞쪽)으로 나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철조망을 넘어 다닐 수 없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수업 전날 사전 안내 필요)
- 활동 2 - 한반도 무궁화 지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 대표가 제한된 준비물 문제를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대화로 해결한다.
- 활동 3 - 무궁화 지도를 완성하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눈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도덕 4. 둘이 아닌 하나 되기 + 미술 주제를 살려서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문제의 이해 ⑤통일의 필요성 ⑥ 통일비용과 편익



고무줄 철조망



우리 교실의 비무장지대



대표 협상



교류 결정



무궁화로 하나 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3) 실행 결과

- 분단의 현실을 오전 내내 체험하는 경험이 처음에는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이벤트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고무줄 철조망을 넘어 남북 교류를 통해 멋진 한반도 무궁화 지도가 완성되었다.
- 강○○“처음으로 남북으로 나누고 비무장지대를 체험해 보았다. 남북 대표도 뽑았다. 처음이어서 어설프지만 남북 분단 체험을 하니 새로웠다.”
- 최○○“지난 번 6.25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 반이 분단 체험을 해 보았다. 사물함에 필요한 게 있어도 못 가져왔다. 이 행사로 통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 최○○“남북통일이 꼭 되어야겠다고 무궁화를 그리면서 웬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
- 홍○○“무궁화 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며 남과 북의 분단을 체험해 보았다. 풀이 없어서 지도를 만들기 어려웠지만 교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다.”

2016-09-20 화 6교시

1) 활동 목적

- 사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안전지대를 찾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신문 활용 교육 활동지의 기사를 읽고 사실 확인 문제를 해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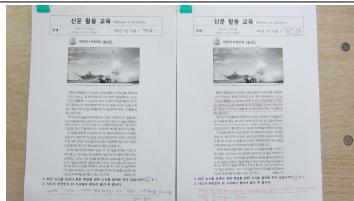
NIE [어린이 시사교실] “선생님, 사드가 뭐예요?” <부록 3>

사드는 적이 쏜 미사일을 지상 40-150km 상공에서 폭발시켜 미사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스템을 말한다는 설명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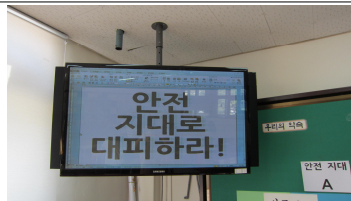
- 활동 2 -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고 게임을 시작한다.
 - ① 교실을 안전지대 A, B, C, D 네 구역으로 나눈다.
 - ② 술래를 뽑아 나머지 학생들은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자신이 선택한 안전지대로 움직이고, 술래는 수면안대로 눈을 가리고 기다렸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폭탄이 터질 구역을 부른다.
 - ③ 술래가 부른 구역의 학생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 ④ 최종 생존자가 나오면 게임을 마친다. 술래를 바꿔 몇 차례 반복할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체육 도전 활동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북한 이해 ③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NIE 활동지



안전지대를 찾아라!



폭탄 대기 중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더 안전해!



타이머가 울렸다!

3) 실행 결과

-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안한 신문 활용 교육 활동지에서는 주로 기사를 읽고 사실을 확인해 보는 질문을 만들었다. 시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생각이나 찬반을 묻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기사 속 사실(팩트) 찾아내기가 주를 이룬다.
- ‘사드’가 무엇인지 질문해 오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NIE 기사에 만족하였다.
- 실내에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모서리 게임’을 변형한 것이다.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고 다음에 또 하자고 조르는데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2016-09-21 수 2-3교시

1) 활동 목적

- 웃어른께 높임말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직접 활용해 볼 기회를 갖는다.
-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애쓰시는 국군 장병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국군 장병께 감사 편지를 쓰면서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키운다.

2)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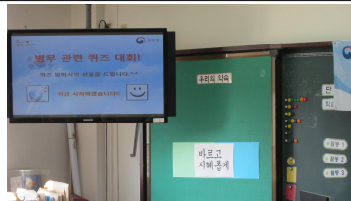
- 활동 1 - 인천병무지원청에서 나와 주신 분들과 함께 '국군 장병께 감사편지 보내기' 활동의 목적과 군 생활을 알아보고 관련 퀴즈를 푼다.
- 활동 2 - 국군 장병께 감사편지를 쓴다.
- 활동 3 - 병무청 마스코트 '굳건이'와 기념 촬영 시간을 갖는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국어 3. 대화를 나누어요 + 국군의 날 계기교육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③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가안보 역량 갖추기



병무청에서 나오셨어요



군 생활 알아보기



퀴즈 타임



감사편지 쓰기



우리가 감사편지를 썼어요



굳건이랑 한 컷



우리도 굳건이랑 한 컷



굳건이 멋있어



우리가 쓴 엽서랍니다

3) 실행 결과

- 인천병무지원청 덕분에 학생들이 군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퀴즈도 재미있게 풀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 인천병무지원청에서 준비해온 엽서에 편지를 썼는데 학생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엽서 한 장 한 장에 듬뿍 표현되었다. 국군 장병들이 편지를 읽고 답장도 해주는지 궁금해 하였다.
- 병무청 마스코트가 '굳건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굳건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여 기념 촬영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의미 있는 국군의 날 계기교육이 되어 학생과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였다.

3. 프로그램 A의 실행: 우리의 소원은 통일

프로그램 A

ASPIRE

평화통일 기원 노래 자랑

2016-07-19 화 3교시

1) 활동 목적

- 남북한 어린이가 모두 좋아하는 동요와 북한의 노래를 알아보고 함께 부른다.
- 함께 불러본 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통일을 주제로 노랫말을 바꾸어 불러 본다.
- 그 밖에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알아보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다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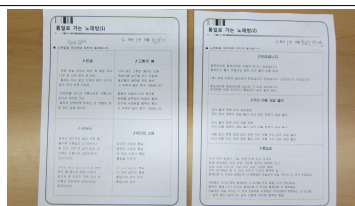
2) 활동 내용

- 활동 1 - 남북 어린이가 모두 좋아하는 동요와 북한의 노래를 알아본다.
- 활동 2 - 통일로 가는 노래방 시간을 갖는다.

통일로 가는 노래방 • 남북 어린이가 모두 좋아하는 노래: <반달>, <고향의 봄>, <금강산>, <우리의 소원> •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우리 아빠 제일 좋아> [2000년 5월 남북 정상회담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공연 영상 활용]

- 활동 3 - 통일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모둠별로 발표회를 갖는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 친교활동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④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추진



노래 가사가 필요해요



같이 불러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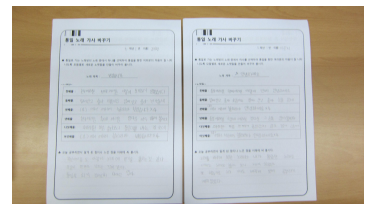
손동작도 함께



우리 모두가 불러볼게요



춤도 주고 싶어요



노래 가사를 바꿔볼까요?



우리 노래 어때요?



신난다! 나도 끼워줘



우리 모둠 실력 괜찮지요?

3) 실행 결과

- 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들도 <반달>, <고향의 봄>, <금강산>,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는 반응이었다.
-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와 <우리 아빠 제일 좋아>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발표회를 가질 때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노래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에게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A

ASPIRE

평화통일 염원 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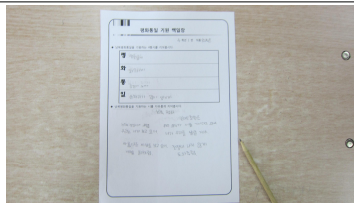
1) 활동 목적

- 4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살려서 시를 써본다.
- ‘평화통일’로 4행시 짓기를 해보고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짓는 백일장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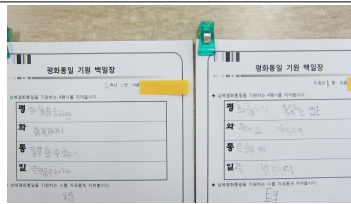
2) 활동 내용

- 활동 1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으며 <저녁때>라는 시를 읽어 보고 <저녁때>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 활동 2 - 시 쓰기 위밍업으로 ‘평화통일’로 4행시 짓기를 해본다.
- 활동 3 - 평화 통일 기원 백일장에 참여한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며 <저녁때>와 <나도 씨앗> 중 하나를 골라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바꾸어 쓰거나 완전히 자신 이 새롭게 시를 쓰고 제출한다. 백일장 우수작을 낭송하는 기회를 갖는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국어 10. 감동을 표현해요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④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추진



시가 쓰고 싶을 때



4행시도 좋아요



시 낭송

3) 실행 결과

- 우수작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을 원할 때></p> <p style="text-align: right;">정○○</p> <p>TV에서 이산가족을 볼 때</p> <p>북한 친구들이 궁금할 때</p> <p>구름빵 속 동물들이 휴전선에 걸려 못 넘어 갈 때</p> <p>이런 때가 통일을 원할 때랍니다. 이런 때가 통일을 원할 때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나도 평화통일 씨앗></p> <p style="text-align: right;">이○○</p> <p>나도 씨앗이다. 평화통일 씨앗</p> <p>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는 평화통일 씨앗</p>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통일 4행시></p> <p style="text-align: right;">김○○</p> <p>평 평화통일을 하면 화 화목하게 살 수 있다 통 통일이 좋은 이유는 일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큰 한 나라</p>
---	--

2016-09-23 금 3-4교시

1) 활동 목적

- 학생들이 국군 장병께 감사 편지를 쓰면서 엽서의 우표 칸에 통일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확장해 평화통일 기원 우표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 8절 도화지에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표를 디자인한다.
- 게시판 전시를 통해 우수작을 뽑아 실제 우표 사이즈로 제작해 국군 장병께 보내는 엽서에 부착해 엽서를 보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내가 디자인한다. 평화통일 기원 우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표를 디자인한다.
- 활동 2 - 게시판 전시를 통해 우수작을 뽑고 실제 우표 사이즈로 제작해 자신이 쓴 엽서에 붙인다.
- 활동 3 - 학급에서 제작한 평화통일 기원 우표를 붙인 엽서를 함께 감상하고 국군 장병께 엽서를 보낸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미술 생활 속 미술의 발견 - 나의 생활 속 디자인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①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키기



내가 디자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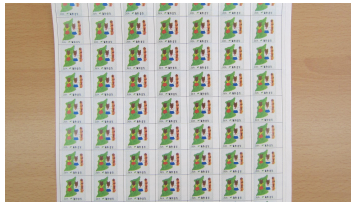
평화통일 기원 우표



평화통일을 가꾸자



하나로! 평화통일



우표 사이즈로 제작



엽서에 우표를 붙였어요

3) 실행 결과

- 일반 편지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잘 쓰지 않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카**톡과 문자에 더 익숙하다. 자신이 쓴 엽서에 우표를 붙여서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흥미로워 했다.
- 다양한 우표 사진을 통해 우표 속에 메시지와 함께 아름다움까지 담겨 있음을 확인한 후 4학년이 되어 '평화통일'에 대해 많이 생각한 것을 각자 우표로 나타내었다. 북한의 국기에 대한 질문과 한반도 지도 모양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도움 요청이 가장 많았다. 자신의 작품이 기념우표로 제작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많았다.
- 학생 한 명, 한 명의 작품이 모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어 놀라웠다.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우표가 엽서에 부착되어 국군 장병께 전달될 것이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국군 장병들께도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10-04 화 3-4교시

1) 활동 목적

- 4학년 2학기 사회 1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경제 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인 ‘선택’과 ‘희소성’을 배우고 미래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 장래희망 표현 수업은 국어, 미술 시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통일한국에서의 나의 장래희망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본 수업은 11-12/16차시에 이루어지는데 9차시부터 우리 주변의 일에 대한 퀴즈 활동을 한다.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 활동 2 -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일도 살펴본다.
- 활동 3 - 통일한국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글로 표현한 후 모둠 친구들과 돌려 읽고 함께 이야기한다. 모둠에서 가장 흥미로운 친구의 일을 골라 학급 전체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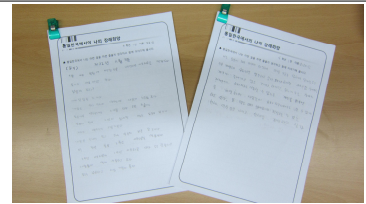
교육과정 연계 사항: 사회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더욱 성숙시키기



통일한국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우리의 꿈을 담아

3) 실행 결과

- 어린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의 기대 이상을 보여준다. 교사인 나도 한 때는 어린이였는데... 모두 통일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 주었다.
- 장○○의 일기“2036년 10월 4일 나는 의사가 되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소식은 통일한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 되도 북쪽은 아픈 사람이 많고 의사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북쪽으로 와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여서 최고의 의사가 될 것이다.”
- 김○○“나는 동물연구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DMZ에서 탐험을 하면서 연구하고 싶고, 그 연구 자료를 우리나라 전체에 알리고 싶다. 새로 발견한 동물을 관찰하고 키우고 싶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동물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관찰하고 싶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과학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좀 더 많은 것을 함께 알고 좀 더 많은 것을 알리고 싶다.”
- 김○○“통일한국에서 나는 아마 건축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에 가서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동물과 나무가 없어지지 않도록 동물보호구역을 따로 크게 만들어서 동물과 식물이 잘 보존된 공간을 만들 것이다. 나는 통일이 되면 자연이 잘 보존되고 공기도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만들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더 좋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4. 프로그램 C의 실행: 함께 꿈꾸자, 평화통일

프로그램 C

COOPERATE

남과 북 통일 텃밭을 가꾸다

1) 활동 목적

- 이 활동의 목적은 과학 교과 단원과 학교 역점 과제인 <체험 위주의 화단과 텃밭 농작물 가꾸기> 교육 활동을 결합하여 함께 키우고 나누며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데 있다.
- 4월에서 7월까지 식물을 함께 키우고 자연을 함께 감상하고 수확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 보며 '함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학교 상자 텃밭을 2칸 신청하여 텃밭을 세 구역으로 구획한다. 북한 팀 (1,3,5,7모듬) 텃밭, 남한 팀(2,4,6,8모듬) 텃밭으로 나누어 북한 팀 텃밭의 2/3에는 들깨 모종을 심고, 남한 팀 텃밭의 2/3에는 목화 씨앗을 뿌린다.
- 활동 2 - 양 팀 텃밭의 나머지 1/3에는 남북을 이어주는 강낭콩 씨앗을 뿌리고 강낭콩의 한살이를 관찰한다.
- 활동 3 - 들깨잎을 수확해 1학기 세 차례 급식 시간에 고기 메뉴가 나오는 날 나누어 먹었고 목화 꽃을 함께 감상하였다. 강낭콩의 꼬투리 개수가 팀마다 다르지만 함께 수확하여 나누어 집에 가져가 먹었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과학 2. 식물의 한살이 + 학교 역점 과제: 예술과 자연을 체험하는 즐거운 생활 교육 - 체험 위주의 화단과 텃밭 농작물 가꾸기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문제의 이해 ⑥ 통일비용과 편익



남북으로 나뉜 텃밭



북의 깻잎 남의 목화



남북을 잇는 강낭콩



함께 키우고 나눠요



선생님이 깻잎 씻는 사이에



강낭콩은 집에 가서 먹기

3) 실행 결과

- 강○○“... 각자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씨앗을 심어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고 점점 자랄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였다. 비오는 날 선생님과 같이 나가서 잡초 제거하고 기다리니 깻잎이 쑥쑥 자라 먹을 때가 돼서 따니 엄청 컸다. 우리 팀의 깻잎을 남한 팀과 나누어 먹었다.”
- 이○○“깻잎을 원래 싫어했는데 이제는 좋아졌다. 우리가 함께 키운 것이어서...”
- 김○○“텃밭의 강낭콩을 보고 맛있을까 했는데 같이 키워서 먹으니 맛있는 콩이 더 맛있는 것 같았다.”

프로그램 C

COOPERATE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남북 단일팀
 국가대표 가상 선발전에 참가하다

1) 활동 목적

- 2016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남한 팀과 북한 팀이 따로 참가하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
-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국제 경기에 참가했던 사례를 살펴본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컬링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컬링 남북 단일팀 국가대표 가상 선발전에 참가한다. 게임 전 컬링의 규칙을 알아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남북 단일팀의 국제적인 이름은 ‘Korea(코리아)’를 쓰는데 단일팀의 기는 한반도기, 국가는 아리랑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본다.
- 활동 2 - 남북 단일팀 주요 참가대회 사례를 알아본다.

M I E 2012년 영화 <코리아> 간단 소개

1991년 4월 일본 지바 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여 우승

- 활동 3 - 유튜브로 컬링 경기를 보면서 규칙을 익힌다. 북한 팀(1,3,5,7모듬)과 남한 팀(2,4,6,8모듬)을 합쳐 1-2, 3-4, 5-6, 7-8 남북 연합팀을 만들어 총 8 팀이 예선전을 치루고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체육 경쟁 활동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④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추진



컬링, 게임으로 익히자



남북 단일팀 국가 대표



선발전 시작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국가대표가 될 거야



남북 단일팀 국가대표!

3) 실행 결과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학생들이 하계올림픽에 비해 생소한 경기가 많고 경기의 규칙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컬링 규칙을 익히면서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이○○의 우승 소감 “남북 단일팀 선발전에서 우승해서 좋았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 기술로 이겨서 기분 좋았다. 어려움이 있어도 통일이 되어 진짜 남북 단일팀이 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C

COOPERATE

DMZ 생태공원을 꿈꾸다

1) 활동 목적

- 강익중 작가가 실향민의 마음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기사를 읽고 '평화통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DMZ 생태공원>을 그리고 각각의 작품을 모아 큰 그림을 만든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신문 활용 교육 활동지의 기사를 읽고 사실 확인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책 81쪽에 실린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달>은 어린이들의 꿈을 그린 작품을 모아 큰 구 모양으로 만들어 물 위에 설치한 작품이다. 가상도와 비교한다.

NIE 실향민의 마음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록 4>
 강익중 작가가 9월 런던 템즈강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 전시 예정.(가상도 사진)
 실향민 그림 500장을 확대해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었음.

- 활동 2 - 강익중 작가가 세계 어린이들의 작품을 모아 '희망의 벽'이라는 설치 작품을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 교실에 '평화통일'의 희망을 담아 각자 그린 그림을 모아 큰 그림을 만든다.
- 활동 3 -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감상한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미술 주제를 살려서 단원 및 미술사와 미술 비평 단원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을 위한 과제 ①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키기



나는



DMZ 생태공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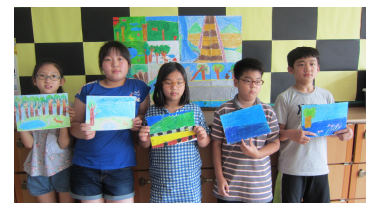
꿈꾼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DMZ 국립생태공원

3) 실행 결과

- 각자의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을 모아 붙이고 나니 매우 조화로운 <DMZ 국립생태공원> 큰 그림이 탄생하였다.

프로그램 C

COOPERATE

통일한국 경제를 꿈꾸다

1) 활동 목적

- 북한 초등학생의 생활을 알아보는 수업에서 북한 사람들이 모두 극도로 가난하거나 북한에 로켓, 미사일이 많아 아주 부자인줄 알았다는 반응이 있어서 2학기 사회 1 단원의 경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경제 한 장면을 살펴볼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 창업자 되기 활동을 통해 회사를 만들고 회사의 제품을 알리고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의사결정을 해본다.
-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창업자 되기> 신발 회사를 만들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회의 를 한다. <TOMS>라는 신발 회사 이야기: 기업의 사회적 역할 사례 로 소개
- 활동 2 - 광고 포스터를 가지고 제품을 알린다.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 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제품에 대한 돈을 지불한다. 가장 많은 돈을 번 회 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다.
- 활동 3 - 신문 활용 교육 활동지의 기사를 읽고 사실 확인 문제를 해결한다.

NIE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시장(市場) <부록 5>
 북한은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급하는 공산주의 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 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1990년대부터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함

교육과정 연계 사항: 사회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북한 이해 ④ 북한의 경제
 통일을 위한 과제 ②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더욱 성숙시키기



기획 회의하기



광고 포스터 만들기



우리 제품 알리기



어떤 신발을 살지 결정하기



신문 기사 읽기



NIE 활동지

3) 실행 결과

- 학생들이 회사를 만들고 신발을 디자인하고 광고 기획을 하는 데서 큰 즐거움을 찾 았다. 북한의 장마당에 대한 반응을 모아보았다.
- 김○○“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있다니 놀랍다.”
- 박○○“이 기사를 읽고 북한은 시장도 마음대로 못 열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 장○○“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저는 좋습니다.”
- 홍○○“통일이 되어 북한에도 시장이 많이 열리고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5. 프로그램 En의 실행: 독일과 북한의 친구를 만나다

프로그램 En

ENCOUNTER

통일독일을 보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품다

2016-07-04 월 2교시

1) 활동 목적

- 국어 9. 생각을 나누어요 단원은 비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 자료도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나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통일교육 평화로미래로의 기획프로그램을 국어 매체 자료로 활용하여 서로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 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영상 매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 단원 성취 기준에도 충실하고자 한다.
- 베를린의 통일 당시 모습과 독일 통일 후 모습을 보면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남북 평화통일의 소망을 나누고 품어 보고자 한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영상 보기 전 활동> 독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본다.

M I E [통일독일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예상해 보자]

베를린, 소망 편 (19분) <부록 6>

통일교육 평화로 미래로 기획프로그램 <통일 리포터! 통일독일을 가다> 활용

3명의 청소년 리포터(박지빈, 남지현, 여진구)가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을 찾아 그곳에서 느낀 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느낀 점을 함께 할 수 있음

- 활동 2 - <영상 보기 중 활동> 통일 리포터가 베를린을 찾아 알게 된 점을 확인해 본다.
- 활동 3 - <영상 보기 후 활동> 독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국어 9. 생각을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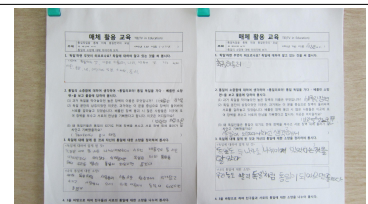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환경의 이해 ① 국제정세의 변화 ②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을 위한 과제 ①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키기



베를린, 소망 편 중 한 장면



함께 생각 나누기



매체 활용 교육 활동지

3) 실행 결과

- 서○○“독일도 남한과 북한처럼 통일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한 순간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천○○“독일은 통일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들의 의지로 통일을 한 순간에 이룬 게 부럽고 존경스럽다. ‘언젠가는 우리도 ...’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다.”
- 최○○“독일에서도 분단과 통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4학년 친구들을 보고 싶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6-07-05 화 3교시

1) 활동 목적

- 드레스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드레스덴의 통일 전과 통일 후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와 학생이 분단의 상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북한은 고구려와 고려 관련 문화유적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미 남북 교류를 통해 재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통일 후 해야 할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영상 보기 전 활동> 북한에는 과거 어느 나라의 문화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에 얽힌 이야기 소개
개성시의 선죽교 소개

M I E [통일독일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예상해 보자]

드레스덴, 치유 편 (10분) <부록 7>

통일교육 평화로 미래로 기획프로그램 <통일 리포터! 통일독일을 가다> 활용
3명의 청소년 리포터(박지빈, 남지현, 여진구)가 과거 동독의 도시로 폐허 속에서 통일 후 경제 재건의 상징이 된 드레스덴에서 보고 느낀 점을 함께 할 수 있음

- 활동 2 - <영상 보기 중 활동> 통일 리포터와 함께 둘러본 드레스덴 지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확인해 본다.
- 활동 3 - <영상 보기 후 활동> 통일 후 북한에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서 발전할 것을 기원하며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교육과정 연계 사항: 국어 9. 생각을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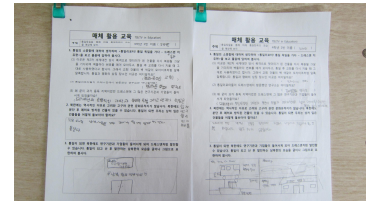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환경의 이해 ① 국제정세의 변화 ②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을 위한 과제 ①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키기



드레스덴, 치유 편 중 한 장면



시청 후 생각 정리하기



매체 활용 교육 활동지

3) 실행 결과

- 강○○“독일처럼 남북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분단 후 폐허로 방치된 문화유적지를) 함께 정비하면서 돌본다.”
- 천○○“통일이 되면 유적지를 잘 보존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고 폐허로 방치된 건물은 재건한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최대한 옛날 모습으로 재건한다.”
- 홍○○“드레스덴처럼 복원한다. 드레스덴처럼 관광지로 발전시킨다.”
- 한○○“폐허가 된 건물들을 재건하고 주변에 가게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2016-07-06 수 2교시

1) 활동 목적

- 비무장지대 DMZ라는 장소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통일 전 독일에도 비무장지대 DMZ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현재 어떤 모습인지 살펴본다.
- 리틀 베를린이라 불린 웨들라로이트 마을의 DMZ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을 보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남북 평화통일의 소망을 다져본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영상 보기 전 활동> ‘가족’과 ‘이웃’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 보고 함께 이야기한다.

M I E [통일독일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예상해 보자]

DMZ 희망 편 (12분) <부록 8>

통일교육 평화로 미래로 기획프로그램 <통일 리포터! 통일독일을 가다> 활용
3명의 청소년 리포터(박지빈, 남지현, 여진구)가 과거 냉전의 상징인 DMZ 지역을 찾아가 느낀 점과 여러 사람들 만나고 느낀 점을 함께 할 수 있음

- 활동 2 - <영상 보기 중 활동> 통일 리포터가 찾은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비무장 지대의 뜻을 알아본다.
- 활동 3 - <영상 보기 후 활동> 통일독일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예상하고 이야기해 본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우리의 DMZ는 어떻게 변신할까?”

교육과정 연계 사항: 국어 9. 생각을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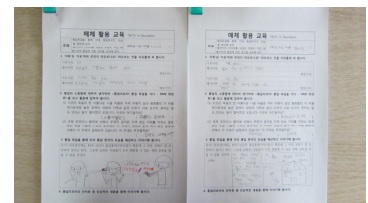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환경의 이해 ① 국제정세의 변화 ②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을 위한 과제 ①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키기



DMZ 희망 편 중 한 장면



함께 이야기해요



매체 활용 교육 활동지

3) 실행 결과

- 박○○“(통일한국에서는) 비무장지대에 기차를 타고 놀러 갈 수 있다.”
- 박○○“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통일이 되면 비무장지대가 없어지고 평화롭고 그곳에 생태 공원이 만들어져서 남북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산가족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이 된 한국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달라져서 힘들 것 같기도 하다.”
- 최○○“북한의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 황○○“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갈 것이다. 경제적인 갈등이 오히려 걱정된다.”

2016-07-19 화 4교시

1) 활동 목적

-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 북한에서 온 가상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본다.
-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현재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만나면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첫걸음임을 깨닫는다.

2) 활동 내용

- 활동 1 - 교과서 속 이야기에 등장하는 <북한에서 온 석철이> 이야기, 실화 사례를 읽고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활동 2 - 애니메이션 <혜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를 함께 본다. 학생들은 '석철'과 '승준'이라는 북에서 온 가상의 친구 중 한 명을 선택해 편지를 쓴다.
- 활동 3 - 편지 발표 시간을 갖고 장차 통일한국에서 북한 출신 친구들과 함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관련 시리즈 애니메이션 <혜미와 통일캠퍼스>를 7/20 수 아침활동 시간에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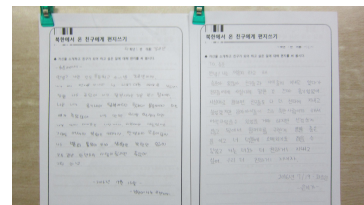
교육과정 연계 사항: 도덕 4. 둘이 아닌 하나 되기
 통일교육 내용체계 항목: 통일문제의 이해 ③ 분단의 폐해 ⑤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서 온 석철이



북한에서 온 승준이



북에서 온 친구에게 편지쓰기

3) 실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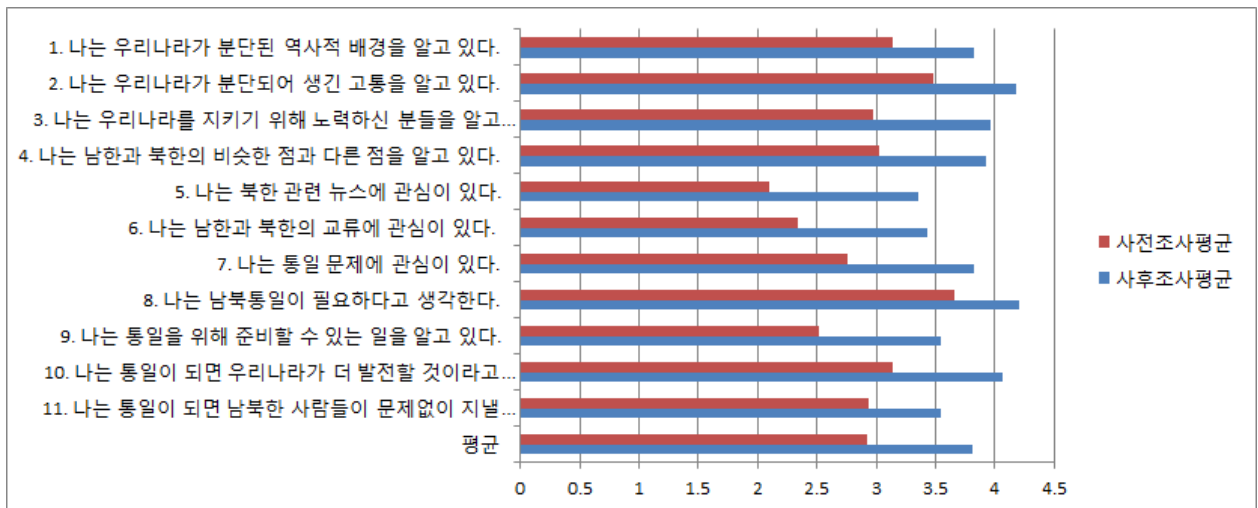
- 학생들은 교과서 속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영상 자료는 더 좋아한다. 통일교육원 자료마당에는 초등용과 중고등용 자료가 안내되어 있으나 활동의 주제에 알맞은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은 골라 먼저 시청한 후 이해 가능하고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중고등용도 과감하게 활용하였다. <혜미 시리즈>도 이해 가능하였고 반응이 매우 좋았다.
- 강○○“... 너가 만약 우리반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다가간 건 나일거야. 처음에는 망설이겠지만. 어차피 북한도 우리나라. 나도 빨리 통일이 돼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없이 모두 같은 한반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
- 최○○“... 너도 북한 친구들이 그림고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북한 노래 우울할 줄만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 특히 <반갑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반갑습니다 춤도 추잖아. 그 노래 덕분에 북한이랑 한민족 한마음이라고 느꼈어. ...”
- 김○○“... 친구들이 형을 따돌릴 때 형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전학을 왔을 때 아무도 몰라 낯설었거든요. 우리 반에 북한 아이가 전학을 온다면 그 애도 형처럼 상처받을 것 같아 잘해줄 것 같아요. ...”

V. 운영의 결과 및 논의

1. 결과

다양한 배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 설문지의 5단계 리커트 척도 11개 문항과 활동 소감을 묻는 개방형 문항 1개로 구성된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빈도와 백분율은 생략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비교한 표와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사전 조사		사후 조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	3.14	1.19	3.82	1.02
2.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생긴 고통을 알고 있다.	3.48	1.30	4.18	0.98
3.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알고 있다.	2.97	1.43	3.96	0.84
4. 나는 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고 있다.	3.03	1.12	3.93	0.72
5. 나는 북한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2.10	1.08	3.36	1.06
6. 나는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관심이 있다.	2.34	1.34	3.43	1.00
7. 나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	2.76	1.12	3.82	0.86
8. 나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6	1.34	4.21	1.17
9. 나는 통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다.	2.52	1.09	3.54	0.88
10. 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14	1.41	4.07	1.21
11. 나는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이 문제없이 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2.93	1.31	3.54	0.96
평균	2.92	1.25	3.81	0.97



➔ 전 문항 응답 평균의 상승 2.92 → 3.81 (30% 상승)

사전 조사에서는 6개 문항의 응답 평균이 3.00을 넘기지 못하며 11개 응답 평균이 2.10 ~ 3.66 사이에 분포하였는데 사후 조사에서는 11개 문항 응답 평균이 3.36~4.21 사이에 분포하며 전 문항 응답 평균이 약 30% 상승하였다.

➔ 사전 조사 응답 평균 하위 4개 문항의 괄목할만한 향상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한 관심 (2.10→3.36, 1.26),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대한 관심 (2.34 →3.43, 1.09),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2.76 →3.82, 1.06), 통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2.52→3.54, 1.02) 문항의 응답 평균 상승률이 1 ~ 4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 사전 조사 응답 평균 상위 3개 문항의 평균은 4.00점 이상으로 상승

사전 조사에서 상위 1 ~ 3위를 차지했던 **통일의 필요성**(3.66→4.21), **분단으로 생긴 어려움**(3.48→4.18), **통일한국 미래에 대한 기대**(3.14→4.07) 문항의 응답 평균은 모두 4.00을 넘었다.

통일 주제 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개방형 문항의 응답은 **관심, 알게 됨, 재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이 재미있었고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통일, 북한,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는 소감을 통해 **평화통일의 희망을 나누고 이미 널리 퍼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키워드	활동 소감 한 마디 모음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 북한 말도 알았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겼다. •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엄청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남북통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 더 하고 싶다. 조금 더 알게 되어 뿌듯하다. • 북한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어 좋았고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 남북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재밌었다. 역사에 대한 것도 많이 알았다.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다른 학년 때보다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보았던 것 같다. • 통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 통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니 우리와 북한이 통일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것 같다. • 병무청에서 와서 군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선생님과 함께 북한말도 배우고 해서 재미있었다. • 통일에 대한 구름빵이라는 만화도 보고 많은 활동을 해서 통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좋았다. • 통일에 대해 공부한 덕분에 더 잘 알게 되었다.
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배워서 재미있고 뿌듯했다. • 통일을 위해 북한을 도와주고 남북통일이 되면 좋겠다. • 통일이 빨리 되어야겠다. • 통일이 되면 좋겠다. •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다. • 통일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니 재미있었다. • 재미있고 보람 있었다.(구름빵) • 재미있고 보람 있고 즐거웠다. • 재미있었다. 특히 병무청에서 온 거랑 구름빵하고 점박이가 기억에 남았다. • 북한 노래와 통일에 관련된 만화 구름빵을 봐서 재미있었다. • 북한 말이 특이하고 재밌고 이상한 말도 있었다.

2. 결론

올해 통일 주제 수업을 계획할 때만 해도 비록 1월부터 핵실험 뉴스가 있었지만 북한 관련 뉴스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은 국제적인 뉴스거리이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사드 문제가 전파를 타면서 어린 학생들도 사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할 정도였다. 통일 계기교육이 매우 적절한 한 해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관심에 있다고 하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설계한 PEACE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분단의 역사와 분단으로 생긴 어려움, 북한 사회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금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통일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은 평화통일 문제를 내면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미만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미와 의미를 함께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내면화한 후 평화통일 의지를 표현하는 활동은 학습한 주제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평화통일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끝날 수 있는 것을 시 쓰기, 노래와 춤, 그림으로 표현, 통일한국에서의 장래희망 발표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었다.

넷째,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남북 공동체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가정, 우리 반, 학교, 지역사회, 우리나라, 하나 된 남북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무엇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다섯째, 분단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를 살펴본 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책,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매체를 잘 활용하면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해 '10만 탈북촌'건설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린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통일 의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DMZ비무장지대 홈페이지. <http://dmz.gg.go.kr>
- 고령초등학교(2014). 통일희망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실천적 통일 의식 함양.
- 곡성중앙초등학교(2014). 흥미와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 의식 함양.
- 교육부(2016). 국어 4-1 교사용 지도서.
- 교육부(2016). 국어 4-2 교사용 지도서.
- 교육부(2016). 도덕 4학년 교사용 지도서.
- 교육부(2016). 사회 4-2 교사용 지도서.
- 서울우암초등학교(2014). 다양한 체험 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통일 의지 함양.
- 신승재(2014). 통일이 놀자.
-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통일교육지침서(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uniedu.go.kr>
- 통일교육 평화로미래로 홈페이지 <http://tongil.moe.go.kr>

신문 활용 교육

NIE(News in Education) <부록 1>

주제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4학년 1반 이름 ()
	북한 초등학생의 과제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 초등학생의 과제

군인이 쓸 ‘토끼 가죽·고철 구해오기’가 숙제래요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 불러요.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1교시당 수업 시간이 5분 단축돼 40분이 됐습니다. 또 우리와 다른 점은 3교시가 끝난 뒤 20분간 체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아이들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 5교시까지 수업을 받아요.

수업이 끝나면 뭘 하나요? 보통 북한 어린이들은 과외나 학원을 가는 학생이 거의 없고, 주로 예체능 과목 위주로 소조(小組·교사의 지도를 받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학·물리 소조처럼 공부를 도와주는 수업도 있기는 하지만, 활발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최근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피아노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요.

북한에서는 소학교 어린이들을 소년단에 입단시켜 조직 생활에 익숙케하도록 교육해요. 입단하는 날은 해마다 차례로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로 정해져 있어요. 소년단에 입단하면 어릴 적부터 충성 경쟁을 시킨대요. 북한의 어른들처럼 일주일에 한번씩 생활 총화(북한 주민들이 업무·생활을 반성하기 위해 가지는 비판 모임)에 참여해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자아비판을 해요. 게다가 서로 잘못된 점을 찾아 ‘아침에 김일성,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물통을 나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공부할 겨를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김정일 초상화를 닮는 정성 작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누구는 아침에 지각했고, 누구는 생활 총화에 빠졌다’면서 상호 비판까지 한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활 총화를 매주 가지니 김정은 일가에 충성을 다하게끔 세뇌되는 거죠.

또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 해도 1959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인 된 ‘노력(勞力) 동원’에 빠질 수 없어요. 북한에서는 교육과 생산 활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농촌 지역 소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농장에 나가 일해요. 그리고 옥수수 의 모를 부식토에 넣어 키운 ‘강냉이 영양단지 모’ 같은 것을 옮기지요. 그래서 이 강냉이 영양단지를 ‘학생단지’라고 부르답니다. 소학교 학생은 연간 2~4주 정도 노력 동원에 참여해야 한대요. 좀 더 나이가 많은 대학생들은 주택 건축에 동원되기도 해요. 잘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노력 동원까지 해야 하니 북한 친구들은 참 힘들겠지요?

또 다른 빠질 수 없는 활동으로 ‘꼬마 계획’이 있어요. 군대나 당의 운영 자금으로 쓰

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토끼 가죽·고철 등을 구해오는 과제를 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모아온 토끼 가죽은 군인들의 귀마개·동복·장갑 등을 만들기 위해 거두어가고, 고철이나 금속은 ‘남북방을 해방할 때 쓰겠다’면서 탱크·장갑차 비행기를 제작하기 위해 군대에 헌납한다고 해요. 이밖에 낱아서 못 쓰게 된 고무·유리·종이도 비쳐야 해요.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를 잘 하는지 10일마다 검열해요. 꼬마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1년 동안 생활 총화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담도 생겨요. 이러니 학생들이 자기의 본업인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렵겠지요? 탈북자 등에 따르면, 어린 학생들은 과제를 못 하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부모들은 이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해요. 꼬마 계획을 도와주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산에 올라 물건을 줍거나,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서 채우기도 한대요. 북한의 소학교 학생은 약 150만명, 중학생은 약 220만명이라고 해요. 이들이 꼬마 계획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 돈 약 429억원에 해당하는 약 3564만달러나 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액수긴 하죠? 북한 어린이들도 맘 편히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김지영·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
2. 북한 초등학교의 1교시 당 수업 시간은 몇 분입니까? ()
3. 북한 어린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주로 예체능 과목 위주로 ○○ 활동을 합니다. ○○은 무엇일까요? ()
4. 북한에서는 어린 학생들이라 해도 1959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인 된 ○○○○ ○에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교육과 생산 활동이 결합된 원칙을 보여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
5. 북한에서는 군대나 당의 운영 자금으로 쓰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토끼 가죽, 고철 등을 구해 오도록 과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 과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

신문 활용 교육

NIE(News in Education) <부록 2>

주제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역사박물관

4학년 1반 이름 ()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역사박물관

세종대왕 소개 않고 이성계 ‘배신자’로... 北 학생들, 조선 왕 나쁜 줄 알아요

하연이는 지난 현충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장래 희망이 역사학자인 하연이는 역사박물관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꼈던 역사적 사건 기념물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미래의 나침반 역할을 하지요. 정치·경제 선진국에 유독 박물관이 많은 이유는 박물관을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에도 역사박물관이 있을까요?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에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이곳에는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신라·백제 삼국 시대, 고려와 조선 시대 역사, 그리고 현대사를 다뤄요.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선 특이하게도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소개하지 않는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역시 고려를 배반하고 나라를 찬탈한 나쁜 왕으로 평가해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런 박물관 현실 탓에 북한 학생들은 모든 조선 왕을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한 봉건시대 왕들’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의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위치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는 당나라를 등에 업은 매국노로 표현하고 있지요.

평양에서는 북한 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방문해야만 하는 조선혁명역사박물관도 있어요. 이곳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역사를 날조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전시실만 90실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우상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 북한 어린이들도 고개를 가우뚱할 때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

어 ‘배움의 천 리 길’이란 김일성이 12세 때인 1923년 3월 “조국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시 살고 있던 만주 팔도 구에서 고향인 평양 만경대까지 혼자 걸어 왔다는 길로 거리가 1000리(약 393km)에 달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12세 어린이가 혼자 천 리 길을 걸었다면 부모가 처벌받을 일이 없었죠?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우상화하기 위해 김정은이 세 살 때 총을 쏘았고 다섯 살 때 한자로 시를 썼고, 말을 타고 달렸다는 이

야기를 꾸며내지요. 북한 각지에는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는 수많은 박물관,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지도자 개인에 대한 우상화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유럽의 루마니아는 북한과 비슷한 개인숭배와 개인 우상화를 시도했던 나라예요. 루마니아의 대통령이었던 차우셰스쿠는 1971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하는 일사불란한 사회체제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루마니아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의 역사박물관을 흉내 낸 루마니아 혁명역사박물관, 북한의 인민대회당을 흉내 낸 루마니아 인민공전을 건설하려고 지시했어요.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 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건물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민공전을 고쳐 지으려고 지시했어요. 결국 차우셰스쿠는 인민공전이 완공되기 전 국민의 손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지요.

하루빨리 북한에서 지도자의 개인 우상화와 독재 정치가 사라져야 해요. 북한 어린이들도 재미있는 박물관에 마음껏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김지영·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내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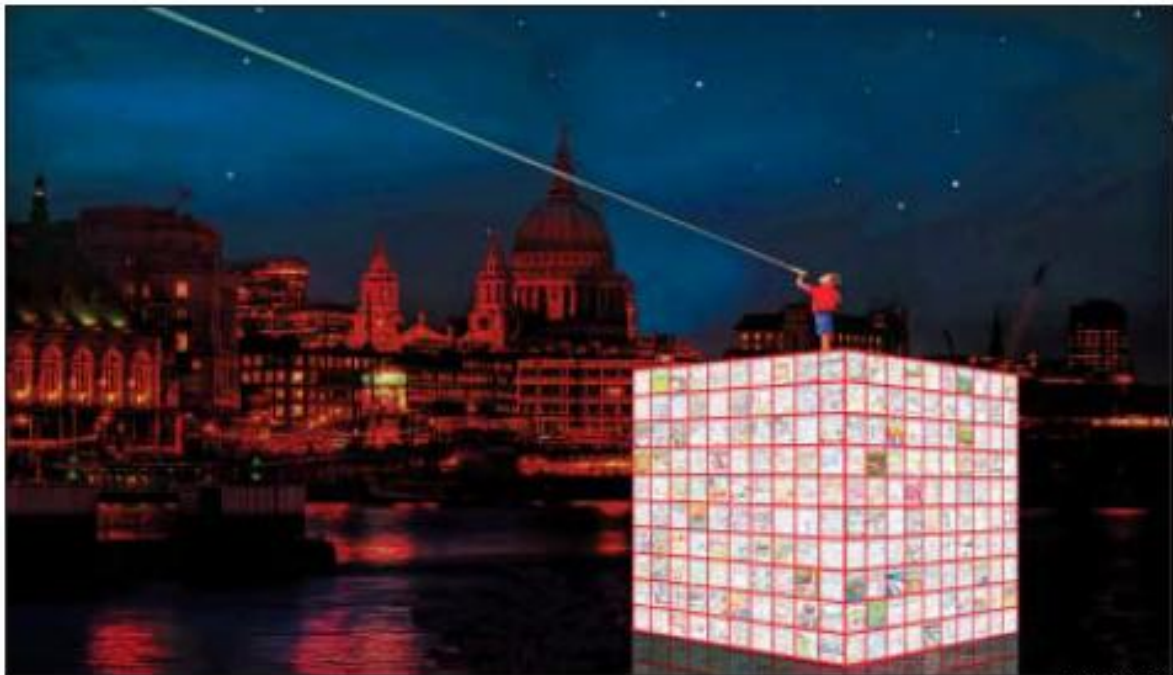
1. 북한에 역사박물관이 있다. (○, X)
2.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는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이 ○○○○을 창제했다고 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안에 알맞은 용어는 무엇입니까? ()

※ 남북 언어 맞히기 놀이를 해 봅시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 작가는 “실향민 어르신들의 희망이 강물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백신처럼 퍼져 가길 바란다”고 했다.

작가는 올 초 70~90대 실향민들에게 고향 모습을 그려달라고 의뢰해 그림 500점을 모았다. 이 그림들을 한지(가로·세로 70cm)에 확대 인쇄해 정육면체 조명

있겠느냐”며 “어쩌면 이분들께 마지막 그림일지도 모르기에 그들의 꿈을 옮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에런스 토털리 템스 예술감독은 “‘브렉시트’에서 핵심 이슈가 난민 문제”라며 “강익중의 작품이 브렉시트로 분열과 증오가 심해진 런던 사람들 마음을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리 기자



강익중 작가

9월 런던 템스강 밀레니엄 브리지 옆에 설치될 강익중 작가의 작품 ‘집으로 가는 길’ 가상도. 실향민 그림 500장을 확대에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었다. 뒤로 보이는 돔 지붕 건물이 세인트폴 대성당이다.

※ 위 기사를 읽고 함께 이야기하여 봅시다. (미술책 81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이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2. 어디에 전시될까요?
3. 작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4. 이 작품에 대한 나의 느낌과 생각은 어떠한가요?
5. 강익중 작가의 작품은 □□□의 그림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를 위 기사에서 찾아 써 보시오.

()

※ 우리도 교실에서 ‘통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형 작품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주제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시장

4학년 1반 이름 ()



남과 북 이렇게 달라요 북한의 시장(市場)

‘장마당’에서 사고팔 때 중국·미국 돈도 사용한다요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정일 시대에 200곳 정도 있었던 장마당(북한의 시장)이 김정은 집권 이후 400여 곳으로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최근 북한의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는 하루 1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은 물론 대형마트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장마당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급하는 공산주의 경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 북한을 장악한 공산주의 정권(북한 노동당)은 “개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은 공산주의 경제 질서와 맞지 않다”며 시장을 활발하게 열지 못하도록 했어요. 물론 시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는 농민들이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나 집에서 기른 가축 등을 사고팔 수 있는 농민시장을 10일에 한 번씩 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배급을 통해 쌀·옥수수 같은 기본 식량을 받고, 농민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구했다고 해요. 생활필수품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골목에 들어선 장마당의 모습이에요.

조인원 기자

은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공산주의 경제가 계속되자 일할 의욕이 떨어진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게 되었고, 1990년대 들어 큰 흉수 등 자연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한의 농산물 생산량은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급기야 식량 배급이 끊어지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부터 북한 주민들은 배급 대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시장에서 파는 식량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10일에 한 번 열리던 농민시장은 점점 상설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런 상설시장을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100명 정도의 상인이 있던 북

한의 한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난 뒤에는 상인의 수가 2000여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채소와 가축은 물론 국가가 배급하던 쌀이나 옥수수, 옷과 신발도 거래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냉장고와 TV 같은 가전제품과 화장품과 술, 자전거, 학생들의 교복과 학용품도 살 수 있어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중국의 위안화나 미국의 달러도 사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되었어요. 최근 북한에서는 “지금 북한에는 장마당과 노동당이라는 두 개의 당이 있는데, ‘장마당’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만 ‘노동당’은 주는 게 없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당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장마당에서 일을 하는 북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당에서 돈을 잘 버는 상인들이 생겨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법을 익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김지수 KEDI 통일교육연구실 부연구위원

1. 북한에서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
2.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이 늘어났다. (O, X)
3. 북한에서는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급하는 ○○○○ 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4. 북한에서는 ○○○ ○○이라고 부르는 시기부터 북한 주민들이 배급 대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시장에서 파는 식량을 구입해야 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찾아 써 보시오. ()

매체 활용 교육 TIE(TV in Education) <부록 6>

주제	-통일독일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예상해 보자. -통일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4학년 1반 이름 ()
-----------	--	------------------------------------

1. '독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독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써 봅시다.

2. 통일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며 <통일리포터! 통일 독일을 가다 - 베를린 소망편>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 (1) 과거 독일을 막아놓았던 높은 장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2)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과거에는 이 문을 중심으로 장벽이 둘러싸여 서로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장벽을 부수고 서로의 만남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
- (3) 왜 독일인들은 통일이 되기도 전에 장벽을 부수고 서로 장벽 위에 올라가 얼싸안고 기뻐했을까요?
()

3. 독일에 대해 알게 된 것과 자신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정리하여 봅시다.

<독일에 대하여 알게 된 것>

<나의 통일에 대한 소망>

4. 3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과 서로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 봅시다.

